



받아들임

정은/가족치료 연구소장 www.tafamily.net

말

은 가을밤 하늘엔 무수한 별이 있고 구름
이 있고 바람이 있다.

해가 있는 자리, 달이 있는 자리, 별이
있는 자리. 그러나 자리다툼없이 조용해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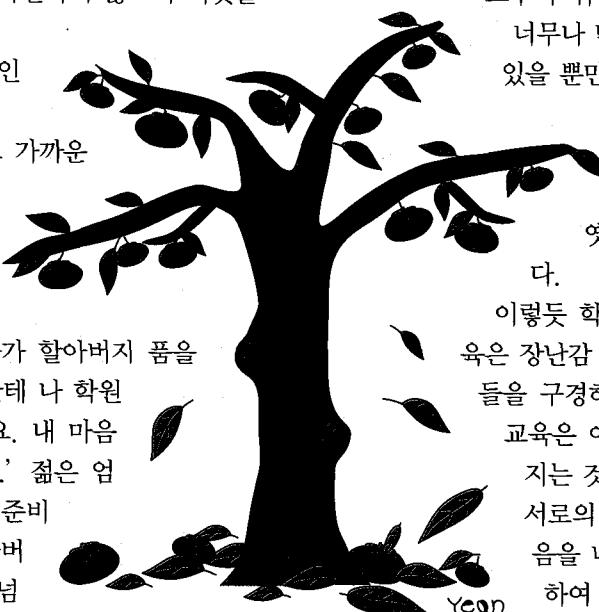
눈을 돌려 가을물든 산하를 보아도 자리다툼
하는 것 같지는 않다. 바다가 강물을 가려서 받지
않으며 강물은 시냇물을 차별하지 않으며 시냇물
또한 청탁을 가리지 않
고 개천의 물을 받아 들인
다. 받아들임의 미학…

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가까운
사람들의 마음 헤아리기
를 게을리 한다.

도무지 쉴 여가를 주
지 않는 어머니를 피해
유치원 다니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품을
찾는다. ‘할아버지 엄마한테 나 학원
보내지 말라고 말해주세요. 내 마음
대로 놀고 싶단 말이에요.’ 젊은 엄
마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
해 두어야 한다면서 시아버
지의 간곡한 당부도 받아 넘
겨버린다.

자신의 목적과 무관한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
않는, 여유 없는 모습이다. 파김치가 되어 있는 아
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들의 속마음을 느끼지 못
하는 엄마들은 학문(學文: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
는 일)이 아니라 학문(學問: 단순히 사물을 배우는
일)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.

그러나 마음 넉넉한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을



헤아리면서 정을 주고받는다. 속이 깊은 옛 어머
니들은 아이 장난감을 만들어 주셨다. 아이들도
어머니가 만들어준 장난감에 혼을 입혀서 소꿉놀
이를 하며 제 피붙이처럼 귀하게 여기며 삶증내지
않았다.

모든 것이 풍요로운 요즈음 어린아이들에게는
도무지 귀함이 없다. 가게에 가면
너무나 많은 장난감이 진열되어
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
장난감이 쏟아져 나오
기 때문이다. 새로운
것을 얻게 되면 이미
옛것은 천덕꾸러기가 된
다.

이렇듯 학원에서, 학교에서의 교
육은 장난감 가게에 진열된 많은 것
들을 구경하는 것과 같다. 진정한
교육은 어머니 품안에서 이루어
지는 것이다. 올곧은 정성으로
서로의 마음을 알고, 서로의 마
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위
하여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
음을 다를 수 있어야 한다.

깨달은 한 사람의 느낌은 가족, 친구, 사회, 세
상속으로 잔잔하게 퍼져 나가며 행복한 기운으로
꽁꽁 얼어붙어 있는 시베리아 동토에 아름다운 봄
을 가져다 주리라.

가득하면서도 빈 여백들이 넉넉한 가을의 자
연앞에서 마음을 나누는 지혜를 키워 우리 모두가
행복했으면 좋겠다. PPFK